

상호결합 방식에 의한 패션 디자인의 외형 변화 연구

양희영·김소영**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서일대학 의상과 부교수**

A Study on the Transfiguration in Fashion Design by the Mutual Combination

Hee-Young Yang · So-Young Kim**

Dire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 Desig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 Seoil College**

(2009. 12. 18. 접수, 2010. 1. 20. 수정; 2010. 1. 20. 채택)

Abstract

In view of our contemporary fashion, it is found that crossover between clothing and other items leads to creation of a new design and crossover of various cultural codes, ultimately creating a multicultural clothing design or any external outline of emerging costume designs by attempting mutual combination with other fields. Starting from a viewpoint that mutual combination style has significant effects on our contemporary fashion designs, this study intends to characterize external aspects of fashion design that changes through mutual combination style.

This study focused upon analyzing costumes released by contemporary fashion designers after 2000, and addressed a variety of mutual combination styles. It gives various examples on mutual combination in fashion, seeking first to look into typical examples of mutual combination styling between fashion and art, between fashion and space and between fashion and technology. Based on those examples, this study classified crossover styles into 6 major categories such as attachment, suspension, modification, fusion, association and embedment. As a result, this study comes to a conclusion that external changes by mutual combination are characterized largely by overlap, simultaneity and deconstruction.

Key Words: Mutual Combination(상호 결합), Overlap(중첩성), Simultaneity(동시성), Deconstruction(탈구조성)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Kim

Tel. +82-2-490-7505, Fax. +82-2-490-7502

E-mail : fdtksy@seoil.ac.kr

※ 본 논문은 2008년도 서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오늘날 우리는 각종 예술사조와 문화적 혼돈 양상,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유목민적인 소비문화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의복은 물리적 기능이나 표현적 기능을 중심으로 디자인 되어 왔지만, 현대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미를 표현하기 위해 패션 아이템들의 상호 결합방식을 통해 외형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옷을 착용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통해 각 아이템을 상호 결합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어 있다.

현대의 패션을 살펴보면, 복식에서의 다양한 상호 결합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의복과 다른 아이템간의 상호 결합으로 신선한 스타일링을 제시한다든가,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상호 결합시켜 다문화적 의복 디자인을 창조하기도 하며, 건물, 가구, 악기 등의 각종 조형물을 결합시켜 확장된 외형을 제시하는 등 의상과 타분야와의 상호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 결합 방식이 현대 패션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호 결합 방식에 의해 변화되는 패션 디자인의 외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호 결합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중 하나로 상호 결합을 고찰한 연구,¹⁾ 현대패션에서 이용된 직물 이외의 다양한 소재를 결합시킨 연구,²⁾ 패션에서의 장르간 하이브리드 경향의 고찰을 통해 패션을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현대의 결집적 인공물로서 고찰한 연구,³⁾ 인텔리전트 웨어로서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⁴⁾ 패션과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킨 연구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결합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의 일부분에서 상호 결합에 대해 언급하거나 내용상 본 연구자가 상호 결합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분석하였을 뿐 패션디자인에서의 상호결합 유

형이나 외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조형 원리 중에서 패션 디자인에 적용되는 상호 결합의 사례들을 조사한 후, 이들 패션에 사용된 상호 결합의 유형을 분석하여 이러한 상호 결합 유형이 패션의 외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 디자인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외형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디자인의 외형 변화를 정리하여 미래 패션디자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호 결합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위해 사회, 문화, 패션, 테크놀로지 등과 관련된 국내외 서적,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및 연구조사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패션 디자인의 외형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0년대 이후 신문, 잡지, 패션전문 서적, 패션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선별한 시각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통한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다.

상호 결합 방식에 의해 보여지는 다양한 패션 디자인을 통해 외형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스타일링의 미적 특징에만 치중하였던 선행 연구들의 연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상호 결합의 의미와 2000년대 이후 현대패션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상호 결합은 어떤 양상으로 보여지는가?

둘째,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상호 결합의 사례를 통해 상호결합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셋째, 상호 결합 유형을 통해 살펴본 현대 패션의 외형 변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II. 상호 결합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상호결합의 의미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몸과 결합하는 제품들은 꾸준히 발견되어 왔으며, 최근에 와서 그 양상은 결합과 이동성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문화적으로 이분법적 사고의 붕괴, 혼성모방, 사이버문화, 테크노문화, 정보유목민 개념 등이 나옴에 따라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며, 제품의 소형화는 인간과 제품의 결합 성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상호결합은 인간의 정신, 육체와 전적,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물리적 안착을 하여 지속적 접촉을 가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동성을 가지는 고대의 도구들은 단순히 인간의 기능 확장에 머무르고 신체와 관련된 결합들이 많았으나, 현대로 올수록 신체와 정신에 동시 결합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⁶⁾

양희영, 양숙희⁷⁾는 상호결합성이란 “패션과 타 영역간의 하이퍼링크(hyper-link)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이며 모호한 형태의 대상을 창조해 낸다. 다양한 분야의 구성요소들이 상호 자유롭게 결합하는 하이퍼링크는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다목적적인 대상을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 상호결합성을 가시적 결합과 비가시적 결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가시적 결합은 기존 실루엣은 유지하되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거나 부분적으로 타 영역이 구성요소들을 형태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비가시적 결합은 기술적 조작을 의복의 내부 구조에 삽입하거나 첨가하여 외양은 일반 의복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의복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나노 단위의 소미립자 상태의 조작을 의복 외피에 첨가하여 시각적으로 인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카오빌라(Caovilla)⁸⁾는 패션은 독립적이며 창조적 언어로 탐구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학문분야인 예술, 디자인, 사회학, 인류학, 과학, 경제학, 연예산업, 스포츠와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시대의 접점에 있으며 이것은 패션이 문화적 독립체로서 가치의 절대기준이 없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상호 결합이란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관계를 의미함과 동시에 문화, 철학, 예술, 건축, 테크놀로지와 같은 타영역으로 작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장르간의 초월과 수평적 관계로서 절대 기준의 타파에 중점을 두어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 간의 결합 성향이 짙어질수록 인체와 패션은 하나의 복합체로서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신체적, 정신적 아름다움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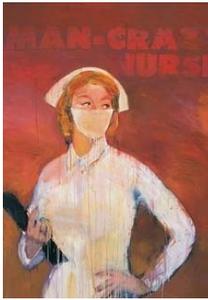
그러므로 상호 결합은 인체미를 표현하기 위한 유기적인 확장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인공적인 구조물과의 결합, 시대, 문화, 예술과의 결합, 테크놀로지와의 결합 등에서 다양한 결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패션디자인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호결합 사례를 패션과 아트, 패션과 공간,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패션디자인에서의 상호결합의 사례

1) 패션과 아트의 상호결합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마크 제이콥스는 예술가와 기획 단계부터 함께 작업하면서 현대 미술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파격적이면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기로 유명하다. 줄리 버호벤(Julie Verhoeven), 스테판 스프라우스(Stephen Sprouse),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 콤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샌드라 버크룬드(Sandra Backlund),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 소피아 코폴라(Sofia Coppola)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가 및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면서 패션과 예술을 접목시키고 있다.

2001년 S/S 컬렉션에서 스테판 스프라우스(Stephen Sprouse)⁹⁾와 함께 작업했던 낙서처럼 휘갈려쓴 형광색의 ‘Louis Vuitton’ 프린트의 그라피티 백, 2003 S/S 컬렉션에서 일본 팝아트 작가 다카시 무라카미(Takashi Murakami)와의 다채로운 컬러로 구성된 모노그램 멀티컬러와 체리 블라섬, 2008년 S/S 시즌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그림 1> Richard Prince, "Man-Crazy Nurse."
http://www.artnet.com



<그림 2> Louis Vuitton, 2008 S/S,
http://www.style.co.kr



<그림 3> Louis Vuitton by Marc Jacobs, 2009,
http://www.style.co.kr

소재로 자신만의 작품을 재창조해 온 포스트모던 팝아트 작가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와 그의 "Big City After Dark" 컬렉션(그림 1, 2),¹⁰⁾ 2009년 스테판 스프라우스에게서 받은 영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낸 컬렉션 <그림 3> 등은 루이비통이 패션과 아트를 상호 결합시켜 다양한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현대 미술과 끊임없는 콜라보네이션 작업으로 '입는 예술'을 표방하는 세린느(Celine)는 새로운 크루즈 컬렉션을 선보이며 아티스트 찰리 하퍼(Charley Harper)¹¹⁾의 작품을 모티브로 활용했다. 세린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바나 오마지쉬(Ivana Omazic)는 2009년 컬렉션을 디자인에서 '찌르레기(Starlings, 1958)', '홍학(Flamingo, 1960)'과 '제비(Swallows, 1960)', '펭귄(Penguins, 1960)', '스키핑 스쿨(Skipping School, 1977)'의 물고기떼 총 다섯 작품의 저작권을 획득하였고, 찰리 하퍼의 비비드한 색채의 일러스트를 의상

과 액세서리에 다양하게 활용했다. <그림 4>는 찰리 하퍼의 '홍학'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풀한 드레스이다.¹²⁾

2008년 프라다의 S/S 시즌에 선보인 일러스트레이터 제임스 진(James Jean)은 아트워크 프린트 스커트와 08시즌 PRADA Wallpaper의 일러스트를 디자인하였다(그림 5). 그는 숲의 요정들이 펼쳐는 몽환적인 느낌의 일러스트로 동화적이면서도 예쁘지 않은 얽힌 동화의 느낌을 풍기는 디자인을 선보였고, 2008 S/S 컬렉션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필름 트램블드 블러섬도 만들었다. 프라다의 기이하고 낯선, 그러나 강한 설득력을 지닌 미학의 세계를 제임스진은 자신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요괴, 섹스, 성기 등을 매우 복잡한 선과 이국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독특한 컬러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패션디자이너들은 패션과 아트를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폭넓은 디자인 영감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이미지들



<그림 4> Celine, 2009 크루즈컬렉션,
http://www.storysearch.co.kr



<그림 5> 2008 시즌 PRADA Wallpaper, 제임스 진(James Jean),
http://holysjm.com



<그림 6> Byblos 2007 F/W,
<http://www.sfc.seoul.kr>



<그림 7> Alexander McQueen,
2007 F/W, <http://www.firstview.com>



<그림 8> Gaultier 2008 F/W,
<http://www.firstview.com>

을 연출하고 있다.

2) 패션과 공간의 상호 결합

현대 패션은 신체가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패션을 공간과 결합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기존의 구성방식으로 디자인된 패션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신체를 감싸는 공간으로서의 패션 본연의 역할에 불충분함을 인지하여 ‘기능과 공간’에 대한 보다 새롭고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한 복합체로 발전하고 있다. 패션은 신체, 신체와 패션 사이의 공간, 패션 자체에 대한 시각을 통합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구성적인 디테일로 변화시켰고, 사용된 소재와 재료를 신체가 움직이는 공간에 배치시키고 있다. 기존의 의복은 신체의 확장으로만 인지되었지만 공간적 연결매체로서의 의복은 경계를 무너

뜨린다.¹³⁾ 패션과 공간의 상호 결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며, 패션에서의 지속적인 공간을 창출하면서 탈구조적인 외형을 보이기도 한다.

첫째, 패션과 공간의 상호 결합은 의복 제작시 구성되는 조형적인 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주름이나 개더 등을 통해 의복을 부풀려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그림 6), 패딩과 같은 충전재를 이용하여 신체의 부피감을 확장시켜 공간을 부풀리는 방법(그림 7), 와이어(wire)나 프레임(frame)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디자인의 외형을 확대시키는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림 8>은 2008 F/W 장 폴 고티에의 컬렉션으로 코드를 엮어 만든 끈을 이용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외형을 확장시킨 디자인이다.

둘째, 패션과 공간의 상호 결합은 타 품목과의 상호 관입을 통해 나타난다. 어떤 의미에서 옷은 신체에 근접한 건축물이며, 건물은 가장



<그림 9> 빅터 & 롤프, 2003 F/W,
<http://www.style.com>



<그림 10> Alexander McQueen, 2007 F/W,
<http://www.style.com>

확장된 의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패션과 건축 모두 인간의 신체, 공간과 운동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적 공간 구성방식인 모듈러 시스템은 전체를 변화 가능한 부분으로 분해하여 이들 간의 상이한 결합을 통해 이전의 형태와 기능을 넘어선 다양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착용자의 필요에 따라 가구나 텐트, 또는 다른 용도의 의상으로 변화하는 CP Company의 트랜스포머블(transformable) 의상은 타 영역간의 기능과 목적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의복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루시 오르타(Lucy Orta)의 의복과 텐트를 결합한 디자인, 후세인 살라얀의 나무로 만든 스커트 등 패션과 공간의 상호 결합은 건축물의 외형 모방이나 건축의 형상을 재현, 또는 건축적 골격의 모방을 통해 보여진다.

<그림 9>은 2003 F/W 빅터 앤 롤프의 '멀티레이어 블라우스, 재킷, 팬츠'로, 공간을 인식하면서 볼륨, 기능, 소재를 통해 건축적인 외부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림 10>은 2007 F/W 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신체에 근접한 건축물로서의 확장된 개념의 의복을 선보이고 있다.

3)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상호 결합

박남희 외¹⁴⁾는 사회 문화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최근 패션디자인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패션에서는 직물로 된 키패드가 붙어 있어 그 옷을 입음으로써 디지털 기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옷부터 생체 신호를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결된 옷에 이르기까지 패션디자인과 각종 첨단 기술이 통합되면서 패션 디자이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서희¹⁵⁾는 패셔너블한 패션에서 테크놀로지의 결합시 요구되는 착용장치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복이나 악세서리와 같이 착용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무게감과 자연스러운 착용감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즉각 반응을 하기위해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끊임없는 통신 지원의 채널이 존재해야하며,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불쾌감과 신체적 피로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패션과 테크놀로지를 상호 결합시킨 디자인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패션에 새로움을 추가하기 위해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신기술의 테크놀로지를 적극 수용하여 트렌드를 반영하는 패션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손에 들고 다니는 모바일 형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통제하는 디지털된 센서를 섬유나 의류에 내장시킨 패셔너블한 의복 등의 형태로 보여진다.

첫째,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특히 패션 소품에서 모바일의 형태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캘빈클라인은 선글라스의 다리 속에 USB 드라이브를 넣은 선글라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HP는 홍콩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비비안 탐(Vivienne Tam)이 디자인한 디지털 클러치백 'HP 미니 1000 비비안 탐 에디션(HP Mini 1000 Vivienne Tam Edition)'을 내놓았다. 이것은 클러



<그림 11> 블루투스로 변신하는 반지와 귀걸이, 2010. 서울신문(2009.10.13)



<그림 12> SoftExpo & DCF 및 차세대컴퓨팅산업전시회 2007, 조선일보(2007.11.29)



<그림 13> Galaxy Dress by Cute- Circuit, 2009, <http://www.fashioningtech.com>

치백으로 들고 다니다가 컴퓨터 작업이 필요할 경우 바로 노트북으로 돌변한다. 또한 블루투스 헤드셋은 선이 없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너무 커서 눈에 잘 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하여 히브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Hybra Advance Technology)와 앵솔루틀리뉴(AbsolutelyNew)는 블루투스 반지 ‘O.R.B’(Orbital Ring Bluetooth)를 디자인했다(그림 11). 반지와 귀걸이가 한 세트인 이 제품은 평소에는 액세서리처럼 착용하다 필요하면 귀걸이 중간을 돌리는 것만으로 통화가 가능한 헤드셋 기능을 하며, 반지 겉면의 작은 화면에는 수신자 정보와 일정 알림 등이 표시된다.¹⁶⁾

둘째,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통제하는 디지털된 센서를 섬유나 의류에 내장시킨 패셔너블한 의복의 형태로 보여진다.

<그림 12>는 2007년 “SoftExpo & DCF(Digital Contents Fair) 및 차세대컴퓨팅산업전시회”에서 선보인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의 상품이다.¹⁷⁾ 구조대원, 우체부 등의 전문직업인을 위한 의상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의상, 가방, 시계 등 각종 패션 소품과 결합돼 건강을 체크하고, 음악을 들려주며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보여주었다.

<그림 13>은 24,000개의 풀컬러 LED로 만든 큐트서킷(CuteCircuit)의 ‘갤럭시 드레스(Galaxy Dress)’¹⁸⁾로 LED 디스플레이 위로 덧댄 네 겹의

실크 쉬폰과 오간자 천이 LED 빛을 은은히 확산시키며 우아함을 나타낸다.

III.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상호결합

1. 상호 결합 유형

앞 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디자이너들의 의상과 제품들을 통해 패션과 아트, 패션과 공간, 패션과 테크놀로지가 서로 상호 결합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호결합의 사례와 2000년대 이후의 패션 디자인을 고찰한 결과, 부착하기, 매달기, 변형하기, 연상하기, 융합하기, 내장하기의 6가지의 상호 결합 유형이 보여진다.

1) 부착하기

부착하기는 상호 결합 방식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옷의 각 부위에 보형물을 만들어 부착하거나 옷의 수납구조를 부착을 통해 결합하거나, 이미 결합되어 있는 형태에 덧붙여서 재결합시키는 등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특한 외형을 만들어낸다. 특히 의복의 구성 방식에서 흔히 쓰이는 포켓, 칼라, 주름, 플리츠 등의 디테일과 각종 트리밍의 부착, 독특한 소재나 형태의 부착은 패션 디자인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들이다.

<그림 14>는 2009 F/W 칼 라거펠트의 디자인

상호 결합 유형 - 부착하기		
		
<그림 14> 칼 라거펠트 2009 F/W, http://www.style.com	<그림 15> Antonio Marras, 2008 F/W, http://www.firstview.com	<그림 16> Gaultier, 2010 F/W, http://www.sfc.seoul.kr

으로, 원피스 드레스에 원형의 장식들과 트레인 (train)의 디테일이 달린 스타일이다. 반짝이는 비즈와 시퀸이 가득달린 드레스에 슬쩍 바치는 툴 트레인이 달린 드레스는 다양한 방식의 부착을 통해 상호 결합된 방식을 보여준다. <그림 15>는 2008 F/W Antonio Marras의 디자인으로,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여 이미 결합되어 외형 위에 주금 장식을 덧붙여서 재결합시킨 의상이다. <그림 16>은 2010 S/S 장 폴 고티에의 컬렉션으로 밀리터리 스타일에 황갈색의 콘브라와 탄약 벨트를 부착한 의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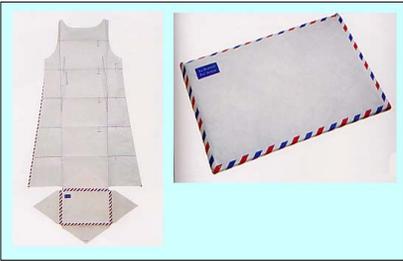
2) 매달기

매달기는 의상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결합 방식으로, 작은 소품을 펜던트 형태로

매달기, 의상에 보형물을 만들어서 매달기, 인체 구조에 맞추어 끼거나 매달아서 외형을 만드는 결합의 형태로 보여진다.

<그림 17>은 랑방의 2010 리조트 컬렉션으로, 라피아 소재의 코르사주와 진주,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볼드한 커스텀 주얼리를 펜던트 형태로 거는 방식으로 매달기 기법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 18>은 후세인 살라얀의 2008 F/W 컬렉션으로, 스톤 네크리스를 매달아 중심의 세로 선과 연결된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림 19>는 빅터 앤 로프의 2007 F/W 컬렉션으로, 머리에는 무거운 쇠 장비와 텅스텐 라이트, 스피커를 짊어지고, 크고 투박한 굵이 높은 네덜란드 나막신을 신고 있다. 이처럼 인체 구조에 맞추어 구조물을 형상화시켜 매다는 결합의 형태도 보여진다.

상호 결합 유형 - 매달기		
		
<그림 17> Lanvan, 2010 Resort Collection. http://www.sfc.seoul.kr	<그림 18> H. Chalayan, 2008 F/W, http://www.style.co.kr	<그림 19> Victor & Rolf, 2007 F/W, http://www.style.co.kr

상호 결합 유형 - 변형하기	
	
<그림 20>H. Chalayan, Airmail Dress, 2005, http://magazine.jungle.co.kr	<그림 21> H. Chalayan, 버블드레스, 2007, http://nymag.com/

3) 변형하기

변형하기는 상호 결합을 통해 의복의 외형이나 형태가 달라지거나 달라지게 하는 것 또는 그 달라진 형태를 말한다. 변형하기는 의복 형태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재현적인 대상을 암시하도록 바뀌놓음으로써 디자인의 외형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림 20>의 “Airmail Dress”는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이 디자인한 작품으로,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을 이용하여 드레스 형태의 항공우편을 제작한 것이다. 드레스 형태의 항공우편은 사라져 가는 편지쓰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처음 제작되었는데 사고의 전달과정으로서 우편이 갖는 가치와 후세인 살라얀 드레스의 ‘사상이 담긴 옷’이라는 컨셉이 일치하여 Airmail Dress라고 이름 지어졌다.¹⁹⁾ <그림 21>은 후세인 살라얀의 2007년도 작품으로 신예가수 레이디 가가(Lady gaga)가 입어서 화제가 되었던 버블드레스이다. 이 버블드레스는 수많은 잡지를 장식했을 만큼 큰 주목을 받았고, 구체적인 오브제를 이용하여 암시할 수 있는 외형변화를 보여주는 형태변이라 할 수 있다.

4) 연상하기

연상은 요소적 경험이 어떤 범칙에 따라 결합되어 표상적 심상과 관념으로 복원되는 것을 말

한다.²⁰⁾ 연상하기는 ‘입는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외형을 갖는 소재들을 결합시켜, 어떤 대상에 대한 유사성과 인접성을 근거로 한 사물의 심상을 다른 사물에 투영해 의복을 통한 새로운 심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22>는 2008 F/W 샤넬 컬렉션에서는 청각에서 얻은 단서를 시각적 환희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선보였다. 형이상학적이면서 도전적이고 3차원적인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블랙, 파이프 오르간의 관을 연상시키는 디자인, 오르간 풀무에서 연상시키는 퍼프 소매 등 악기를 연상시키고 있다. <그림 23>은 2009 S/S H. Chalayan의 디자인으로, 바람이 불어서 날리는 듯한 효과를 연상하여 만든 드레스로 자연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림 24>의 2009 S/S 아르마니 프리베 컬렉션은 글래머를 상징했던 1930년대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 파고다 슬리브 재킷, 레드 컬러, 술 장식과 퇴폐적으로 흔들렸던 꽃무늬 등을 통해 1930년대 상하이를 연상하게 한다.

5) 융합하기

융합이란 감정적인 요인으로 관념이 연결되어 사고가 진행되고 판단이 내려지는 일로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기능이 융합되어 복합적인 전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화적 융합, 시대적 융합, 사상적 융합, 예술적 융합 등 다양한 결합의 형태로 나

상호 결합 유형 - 연상하기		
		
<그림 22> Chanel, 2008 F/W, http://www.style.co.kr	<그림 23> H. Chalayan, 2009 S/S, http://www.style.co.kr	<그림 24> Armani, 2009 S/S, http://www.style.co.kr

상호 결합 유형 - 융합하기



<그림 25> Givancy, 2009
F/W, <http://www.style.co.kr>



<그림 26> Anna Sui, 2008
F/W, <http://www.style.co.kr>

타난다.

2009 F/W 지방시의 컬렉션은 모로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팬츠, 후드, 베일 등 드레이핑 실루엣이 강조된 라인과 볼드한 골드 액세서리가 접목되었다. 이 컬렉션에서 리카르도 티시는 아랍세계의 전사나 베두윈족을 떠올리게 하는 히잡 모티브와 하렘팬츠가 서양의 예수님과 섞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유의 여신상 같은 티아라를 쓰고, 흰색 베일이 길게 늘어진 페이턴트 레더 코르셋과 크림 팬츠를 입은 칼리클로스로 다양한 문화적 융합을 시도하였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얼굴과 목을 뒤덮은 스테드(stud)와 스캠글은 모로코나 서아프리카의 유목민들, 또는 사막의 전사들이 새겨넣은 문신처럼 강렬한 문화적 융합을 보여준다.

안나 수이의 2008F/W 컬렉션은 라파엘로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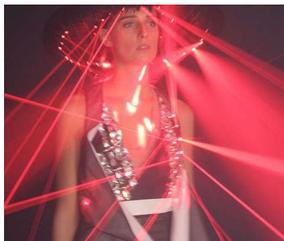
의 미학적 움직임, 포츨니(Fortuny)의 플리츠, 중세 사상, 구스타프 클림트, 퍼시픽 노스웨스트의 아메리칸 인디언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림 26>은 여러 가지 요소를 백과사전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무지갯빛 프린트, 강렬한 컬러의 조화, 아르누보식 자수 장식, 플라워 헤드피스에서 페이스리 타이즈까지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여 신선한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다.

6) 내장하기

패션에 내장된 첨단시스템들은 상호결합 관점에서 볼 때 기계의 일체화된 시스템으로써, 서로의 구조에 있어 유연하게 유기적 형태로 결합된다. 내장하기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기능성, 정보성, 치료성 등 새로운 기능을 가미한 첨단 제품들을 의복에 내장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후세인 살라안은 혁신적인 재료의 사용과 정확한 섬세한 패턴,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명성이 높다. 2009년 열린 전시회에서 그 자체를 의상으로 변화시키는 이 동식 건축물이 포함되었으며, <그림 27>의 'Airborne'라는 제목의 이 의상은 15000개의 깜박거리는 LED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구성된 눈부신 드레스로 패션 디자인의 최신 LED 테크놀로지 기술을 내장한 의상이다. 'Before minus now'는 리모컨으로 형태를 제어하는 항공기 구조물을 의복의 재료로 사용하여 기술을 내장시킨 드레스이며, 'Readings'는 200개가 넘는 멋지고 환상

상호 결합 유형 - 내장하기



<그림 27> H. Charayan, 스와로브스키 LED 드레스, 2009. <http://designmuseum.org/exhibitions/2009/hussein-chalayan>.



<그림 28> Oxbow, 2009. <http://blog.naver.com/lyoung516>



<그림 29> 코오롱스포츠, 라이프세이버재킷, 2009. 국민일보(2009.10.15)

적인 움직임은 레이저들로 만들어졌다. 21)

<그림 28>은 유럽의 아웃도어 브랜드 Oxbow의 09/10 F/W 컬렉션에서 선보인 Reggae Bluetooth snowboard Jacket이다. 기존 브랜드에서 많이 선보였던 iPod만을 조절하던 키패드에서 블루투스 기기 모두를 제어할 수 있는 키패드로 진화되었으며, 후드 부분에 마이크폰이 내장되어 있고, 소매 부분의 조작부는 실리콘으로 제작되고 소매부분은 전자칩을 상징하는 프린트가 되어 있다.

<그림 29>는 등산 중 조난에 대처하기 위한 코오롱스포츠의 ‘라이프세이버 재킷’인데, 내피에 보온성이 뛰어난 ‘히텍스’ 소재를 사용, 소형 배터리가 든 발열장치로 2분 만에 섭씨 35-40도로 데워져 6-8시간 동안 유지됨으로써 저체온증을 막아주는 재킷이다. 또 왼쪽 소매상단에는 조난시 원거리에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넣었다. 22)

2. 상호 결합에 의한 외형 변화의 특성

21세기에 들어서 타분야와의 상호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패션은 새로운 외형을 지닌 조형적 아름다움과 특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세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의 산물들이 여전히 상호 결합이라는 미명하에 변형되고 과장된 스타일의 패션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불확정적이고 무개념적인 패션들이 시대, 문화, 예술사조, 테크놀로지 등 모든 분야를 하나의 틀로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6가지 상호 결합의 유형을 통해 나타난 외형 변화의 특성은 중첩성, 동시성, 탈구조성으로 나타난다.

첫째, 상호결합 중 부착하기, 매달기 유형을 통해서 중첩성이 보여진다.

패션은 신체와 결합되면 의복의 외형이 곧 사람들의 외모를 대변하는 신호적 의미 체계가 된다. 중첩은 두개의 사물이 겹쳐 보이면 가려져 있는 것이 멀리 있다고 판단하게 하므로, 신체의 단점을 가리면서 그 위의 의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중첩은 신체와 패션 사

이의 공간을 인지하고 다층적 공간으로 분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외형 변화를 보여준다. 즉 사람들은 신체를 통해 발산되는 신체 외모적 성향과 패션을 상호 결합시켜 끊임없는 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상호 결합 유형 중 부착하기 방식은 기본 실루엣에 덧붙이는 각종 보형물, 디테일, 트리밍 등에 의해 중첩의 효과를 보여주며, 매달기 방식은 펜던트 형태로 매달거나 구조물을 의복에 매다는 형태로 인체의 부피감을 부각시켜 중첩의 효과를 보여준다.

둘째, 상호결합 중 연상하기, 융합하기, 내장하기 유형을 통해서 동시성이 보여진다.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는 의미적 인접성은 동일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기능들이 결합함으로써, 동일한 행위를 지원하는 경우의 결합이라고 하였다. 또 시간적 동시성은 같은 시각 다른 여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속성에서의 결합이라 하였다. 23) 그러므로 패션에서의 동시성은 의미적 인접성과 시간적 동시성을 통해 여러 문화의 결합, 여러 시대의 결합, 여러 예술사조의 결합,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동시성을 표출하고 있다.

상호 결합 유형 중 연상하기는 형이상학적이면서 3차원적인 이미지의 조형물들을 연상시키는 디자인들을 통해 의복이 곧 조형물이라는 동시성을 보여주고 있다. 융합하기는 문화적 융합, 시대적 융합, 사상적 융합, 예술적 융합 등의 다양한 결합 형태를 통해 동시성을 표출한다. 내장하기는 패션에 내장된 첨단시스템들을 결합시켜 패션과 기계를 유기적인 형태로 결합시켜 동일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동시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상호결합 중 변형하기, 내장하기 유형을 통해서 탈구조성이 보여진다.

패션디자인에서 각 구성 요소들의 상호간의 탈구조적인 결합 성향이 짙어지면 신체와 의복을 하나의 복합체로써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복들은 신체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의복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형성하게 된다. 현대가 복잡해질수록 의복에 필요한 물리적 기능과 의복을 통한 전달적 기능이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표 1〉 상호결합 사례를 통해 살펴본 상호결합 유형 및 외형의 특성

상호결합사례	상호결합유형	외형의 특성
패션과 아트	부착하기	중첩성
패션과 공간	매달기	
패션과 공간	변형하기	동시성
	연상하기	
패션과 테크놀로지	융합하기	탈구조성
	내장하기	

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의복 구성 방식을 해체하고 일탈하는 탈구조성은 의복의 외형 창조에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의복 공간의 차이와 변화를 생성시킴으로써 각 구성 요소들을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결합하게 한다.

상호 결합 유형 중 변형하기는 의복 형태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재현적인 대상으로 암시함으로써 탈구조적인 의복의 외형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내장하기는 기존의 의복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던 혁신적인 재료의 사용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키면서 탈구조적인 외형들로 보여지고 있다.

V. 결론

패션 디자인에서의 상호 결합은 인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결합 형태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다른 장르의 디자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새롭게 시도되는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된 의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상호 결합 방식에 의한 패션은 획기적 발상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조형적 실험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패션들이 지니는 외형적 형태는 미의식의 확대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디자이너들의 의상과 제품들을 분석하여, 패션과 아트, 패션과 공간,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측면에서 상호결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호결합의 사례에서 고찰

한 결과, 부착하기, 매달기, 변형하기, 연상하기, 융합하기, 내장하기의 6가지 방식으로 상호결합의 유형을 분석하였고, 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착하기는 상호 결합 방식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옷의 각 부위에 보형물이나 옷의 수납구조를 부착하거나, 이미 결합되어 있는 형태에 덧붙여서 재결합시키는 등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 둘째, 매달기는 의상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결합 방식으로, 작은 소품을 펜던트 형태로 매달기, 의상에 보형물을 만들어서 매달기, 인체 구조에 맞추어 끼거나 매달아서 외형을 만드는 결합의 형태로 보여진다. 셋째, 변형하기는 의복 형태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재현적인 대상을 암시하도록 바꿔놓음으로써 디자인의 외형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넷째, 연상하기는 ‘입는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외형을 갖는 소재들을 결합시켜, 어떤 대상에 대한 유사성과 인접성을 패션에 반영한다. 다섯째, 융합하기는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며, 여러 기능이 융합되어 복합적인 전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화적, 시대적, 사상적, 예술적 융합 등 다양한 결합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섯째, 내장하기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기능성, 정보성, 치료성 등 새로운 기능을 가미한 첨단 제품들이 의복에 내장되어 나타난다.

상호 결합의 유형을 통해 나타난 외형 변화의 특징은 중첩성, 동시성, 탈구조성으로 나타난다. 첫째, 중첩성은 부착하기, 매달기 유형을 통해 나타난다. 부착하기는 기본 실루엣에 덧붙이는 각종 보형물, 디테일, 트리밍 등에 의해, 매달기

는 펜던트 형태로 매달거나 구조물을 의복에 매다는 형태로 인체의 부피감을 부각시킴으로써 중첩성이 보여진다. 둘째, 동시성은 연상하기, 융합하기, 내장하기 유형을 통해 나타난다. 연상하기는 각 사물을 연상시키는 디자인들을 통해 의복이 곧 조형물이라는 동시성을 보여준다. 융합하기는 문화적, 시대적, 사상적, 예술적 융합 등 다양한 결합 형태를 통해 동시성을 표출한다. 내장하기는 패션에 내장된 첨단시스템들을 결합시켜 패션과 기계를 유기적인 형태로 결합시켜 동일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동시성을 보여준다. 셋째, 탈구조성은 변형하기, 내장하기 유형을 통해 나타난다. 변형하기는 탈구조적인 의복의 외형 변화를 통해, 내장하기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접목으로 탈구조적인 외형들이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 결합 방식에 의한 디자인의 원리를 통해 인체가 지닌 본연의 틀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킨 외형 변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상호 결합 방식을 체계화해봄으로써 디자인 발상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패션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양희영, 양숙희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연구. *복식* 58(1), pp.126-128.
- 2) 김선영, 심준영 (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한국의류학회지* 32(5), pp.741-752.
- 3) 김자민, 하지수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르간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 *복식* 55(8), pp.1-14.
- 4) 전해정, 하지수 (2009). 인텔리전트 웨어로서 패션디자인의 특성 분석. *복식* 59(2), pp.70-86.
- 5) 박나희, 이현정, 최윤미, 김윤희 (2008). 현대 패션에서의 테크놀로지 컨버전스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6(1), pp.88-99.
- 6) 진선태, 박영목 (2001). 인간과 인터컴비네이션 관점에서의 제품특성연구. *디자인학연구* 14(3), pp.145-154.
- 7) 양희영, 양숙희 (2008). Op. cit, pp.126-128.
- 8) Caovilla, P. (2001). *Taste the Fashion*. Milana: Skira Editore SPA,
- 9) 스테판 스프라우스는 앤디 워홀의 영향 아래 미술, 음악, 패션의 융합을 시도했으며, 핑크 록, 와일드한 그래피티, 스트리트 패션, 즉 80년대 초 뉴욕다운타운 문화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주도했다. 또 그 자신이 반항, 혁신, 도전, 젊음의 아이콘이 되어 마크 제이콥스, 존 갈리아노 등의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 10) 김지영 (2009). 루이비통 디자인 혁신의 원동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4), pp.691-708.
- 11) 자연과 동물에 중점을 둔 그래픽적 일러스트를 선보이는 찰리 하퍼. 찰리 하퍼는 큐비즘에서 영감을 받아 미니멀 리얼리즘 스타일의 그림을 선보였는데, 그림을 단순화했을 뿐 주제의 본질을 아주 예리하고 유머러스하게 포착해냈다. 무엇보다 독특한 색감과 대담한, 그리고 유머와 위트 같은 그만의 매력적인 요소는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 12) 자료검색일. 2009.11.28. <http://www.storysearch.co.kr/story>
- 13) 양희영, 양숙희 (2009). 21세기 복합적인 패션 공간에 나타난 탈경계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7(4), pp.606-607.
- 14) 박나희 외 3인 (2008). Op. cit, pp.88-99.
- 15) 이서희 (2009). 현대패션에서 패셔너블 테크놀로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 pp.246-253.
- 16) 서울신문 (2009.10.13). “디지털도 패션… ‘브루투스 만지는 뭐야’”. 자료검색일 2009. 11.13
- 17) 조선일보 (2007.11.29). “패션과 하나로 결합된 ‘입는 컴퓨터’”. 자료검색일 2009.11.15.
- 18) 큐트서킷은 2004년 프랑체스카 로셀라(Francesca Rosella)와 라이언 겐즈(Ryon Genz)

가 설립한 기업으로, 웨어러블 기술 제품 및 스마트 텍스타일 기반 의류 등과 같은 제품들을 선보여왔다. 이 드레스에 사용된 FED의 크기는 2×2mm. 그 두께가 종이처럼 얇아서, 다른 패브릭과 다르지 않은 가벼움과 유동성을 갖추었다.

- 19) 자료검색일. 2009. 10.10. <http://magazine.jungle.co.kr/>
- 20) 자료검색일. 2009. 11.5. <http://ko.wikipedia.org/wiki/>
- 21) 자료검색일. 2009. 9. 5. <http://designmuseum.org/exhibitions/2009/hussein-chalayan>.
- 22) 국민일보 (2009.10.15). “코오롱스포츠, 발열, 조명 등 조난 대처 기능 갖춰” 기사검색일. 2009. 11. 13. 이 제품은 무게는 초경량 소재인 ‘고어텍스 프로셀’로 만들어져 일반 겨울용 재킷보다 무겁지 않다. 여기에 100% 방수와 방풍, 투습 기능을 갖추었으며, 우측 가슴 포켓에는 응급처치기구, 대용량 비상식량, 은박시트 등의 ‘서바이벌 키트’가 들어있다.
- 23) Abraham Moies, 엄광현(역) (1999). *키치란 무엇인가*. 서울: 시각과 언어, pp.267-268.